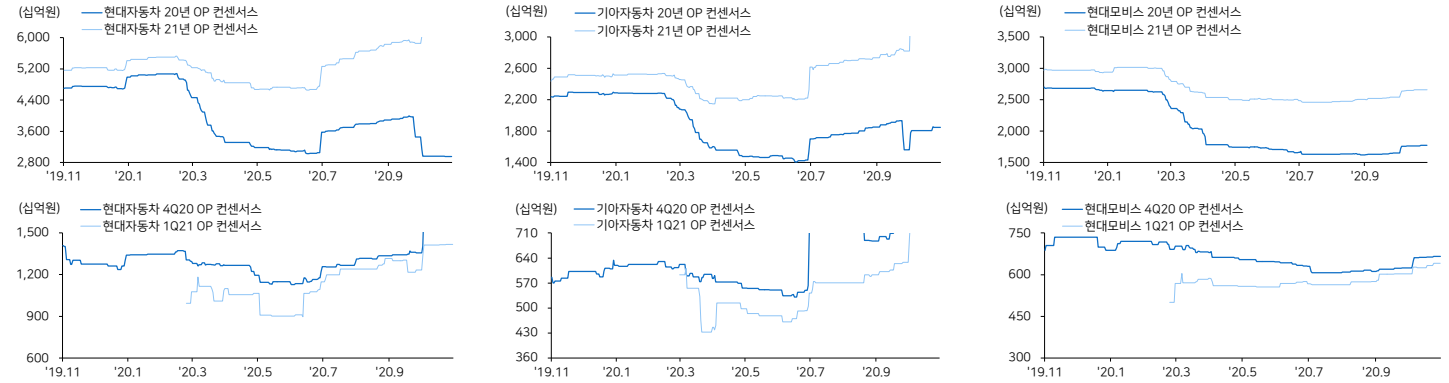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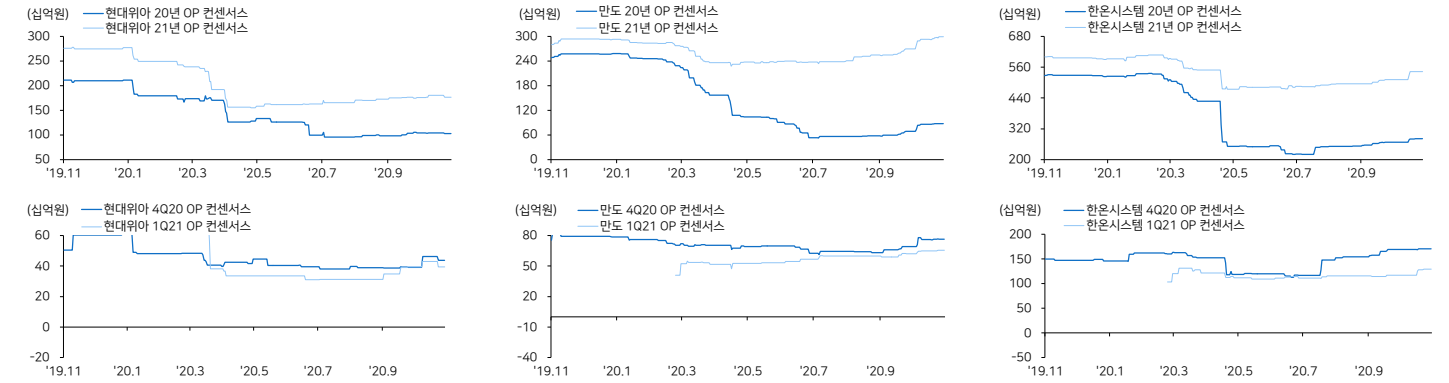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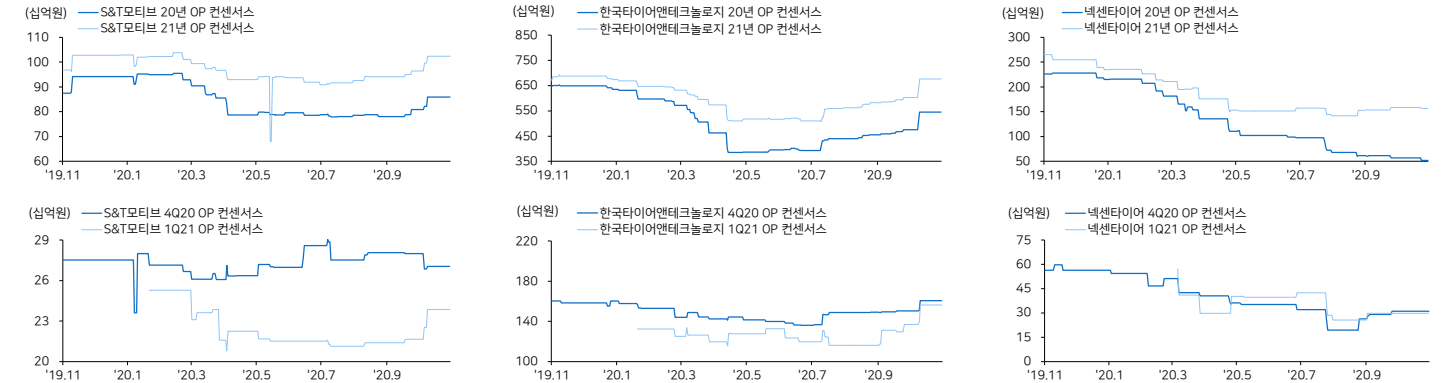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운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내년 전기차 승기 누가 잡나...현대차 vs 글로벌 완성차 (아시아타임즈)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내년 전기차 시장 승기를 잡기 위한 무대에 본격 오름. 내년에는 현대차와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가 쏟아질 예정이다.
<https://bit.ly/3nP0H6S>

"미국 시장 잡아라" 현대차 신차 대거 공개 (아시아경제)

중국에서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현지 전시장회를 통해 신차를 대거 선보이며 충공깽에 나서고 있음. 현대차 그룹은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참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오는 29일까지 '광저우 국제모터쇼'에 부스를 마련.
<https://bit.ly/398mtGu>

美 컨슈머리포트 "현대차 6위, 미쓰다 1위" (파이낸셜뉴스)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는 26개 차량 브랜드의 소비자 신뢰도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 자동차 소유주 30여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는 신뢰도 62점으로 6위를 차지.
<https://bit.ly/35T0bPt>

기아차도 파업 '도미노'...美 GM, 한국 사업 철수 경고 (YTN)

국내 완성차 업계의 연쇄 파업이 현실로 다가옴. 기아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이미 파업 중인 한국GM에는 미국 본사가 사업 철수를 경고해 위기감이 커짐.
<https://bit.ly/3kZfPEt>

전기차 '올인' 선언하는 글로벌 후 업체들 (조선비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올인(All-in)'을 선언하고 있음. 유럽, 중국 등 20여개국이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https://bit.ly/31X3Qsm>

기아차, 미 신형 쏘렌토 가격 인상...수익성 개선 (더그투)

기아자동차가 4세대 쏘렌토 출시와 함께 미국에서 가격을 인상. 2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미국법인인 2021년형 쏘렌토를 출시하면서 엔트리 모델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 기존 가격 대비 2450달러 인상.
<https://bit.ly/3363B70>

산 넘어 산' 현대차, 코나EV 리콜 마무리 수순에도 집단소송 등 가시밭길 (서울경제)

잇따른 화재 소식으로 논란이 됐던 현대자동차의 코나EV 리콜 조치가 마무리 단계지만 집단소송 움직임 등 관련 논란이 오히려 확산 중. 현대차에 따르면 차량 화재로 리콜 대상이 된 코나 EV 2만 5,564대 중 90% 이상에 대한 리콜 조치가 완료됨.
<https://bit.ly/375usBA>

日, 전기차 인프라 전국으로 조성한다 (아시아경제)

일본이 전국에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일본 에너지백서 2020에 따르면 일본은 신규 2차 에너지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지원 일환으로 전기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유통 인프라 정비사업 보조금 제도를 실시.
<https://bit.ly/2USZ8iH>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아니거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